

# 조선시대 한문의 시대 흐름과 한글꼴 변화의 상호관계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nd Korean alphabet during the Chosun dynasty

김지영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im, Ji Yo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SNU

양승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Yang, Seung Chun

Dept. of Industrial Design, SNU

• Key words: font, Korean alphabet, Chinese alphabet, Chosun dynasty

## 1. 서론

글꼴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와 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문화적인 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언어의 의미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글 활자꼴들은 창제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변천해 온 결과로 정착된 글자꼴이며, 그 변천 과정에서 각 시기마다 수많은 독특한 옛 글자꼴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글꼴들을 발굴하여 잘 분석해 본다면 전통적이고 심미적인 우리 문화 고유의 조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 분석방법

옛 한글 문헌 중에서 한글 필사체는 한글이 창제된 후 500여년이 흘렀으나 인쇄체와 같이 그 진본 또는 사본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서체 연구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려는 내용은 아래 [표1]의 시대 구분을 토대로 하여 진경 시대에 해당하는 옛활자 시대의 후2기 교서관기와 후3기 정형기의 활자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에 출간된 중앙관서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고문헌들을 중심으로 그에 나타난 한문서체와 한글서체의 대상을 표본추출법(標本調査法)에 의하여 비교, 분석한다.

[표 1] 활자체 변천의 시대구분 (김진평, 한글조형연구, P.115.)

시 대	시 기	기 간	
옛활자 시대 (1443~1863)	전1기, 창제 초기	1443년(세종 25년)~1450년(세종 말년)	
	전2기, 창제 후기	1451년(문종 원년)~1460년(세종 6년)	
	전3기, 인경기	1461년(세조 7년)~1505년(연산군 말년)	
	전4기, 경서기	1506년(중종 원년)~1591년(선조 24년)	
	후기	후1기, 난후 복구기	1592년(선조 25년)~1659년(효종 말년)
		후2기, 교서관기	1660년(현종 원년)~1724년(경종 말년)
		후3기, 정형기	1725년(영조 원년)~1800년(정종 말년)
		후4기, 옛활자 말기	1801년(순조 원년)~1863년(침종 말년)
새활자 시대 (1864~1949)	1기, 도입 교체기	1864년(대원군 원년)~1909년(순종 3년)	
	2기, 개발 침체기	1910년~1945년(일제 치하)	
	3기, 새활자 말기	1946년~1949년(광복 이후)	
원도활자 시대 (1950~현재)	1기, 도입 보급기	1950년~1959년(6.25사변 이후)	
	2기, 원도 개발기	1960년~1978년(4.19의거 이후)	
	3기, 기술 개발기	1980년~현재	

## 3. 후2기

### 3-1. 개요

후2기는 현종 원년인 1660년에서 경종 말년인 1724년까지의 65년간으로서, 이 시기부터는 활자의 주조와 언서의 직무가 본래의 교서관으로 돌아와서 활발한 활자 주조와 서책 인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숙종 10년경부터 교서관에서 인쇄전용 한자 활자체인 '교서관 인서체'가 개발된 것을 근거로 하여 김진평 선생은 이 시기를 교서관기라 명명하였다.

### 3-2. 한글과 한자와의 관계

김좌명체와 원종체의 병용 한자 활자는 모두 한글과 유사한 크기의 굵기이며, 돌기, 맺음, 내리짐 등에서 기하학적인 성격과 붓글씨적인 성격이 뒤섞여 있다. 글자 구성은 비교적 균정하며, 닿자의 길이가 홀자보다 적게되어 글자 윤곽이 네모틀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병용 한자의 구성과 비슷하다.

[표 2-1] 김좌명체의 병용한자와 한글의 서선 비교

한 글	며	성	히	티	씩
한 문	昭	冥	湛	干	保

원종체는 줄기의 성격에서 한글과 한자가 동화되고 있다. 줄기의 굵기가 김좌명체보다 현저하게 고르고 그 성격도 붓글씨적인 것으로 통일되었다. 붓의 흔적과 쓰기 순서가 강하게 표현된 부드러운 붓글씨체 모양으로 통일되었다. 글자의 구성에 있어서는 세로줄기나 기둥선은 가지런한 반면, 가로줄기는 대체로 오른쪽 오름으로 기울어졌다.

[표 2-2] 원종체의 병용한자와 한글의 서선 비교

한글	니	그	샤	빅	티
한문	亂	君	夫	伯	待

현종 어필편지까지는 후1기인 난 후 복구기의 붓글씨체 자료와 동일한 흐름이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한글 나름으로서의 필사체를 만들지 못하고 한자의 행, 초서를 그대로 모방하여 쓰게 되었다. 같은 시대의 죽남 오준(竹南 吳琮, 1587~1666)의 글씨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강약의 조절과 세로 서선을 굵게 송곳 형태로 운필하고, 첫획을 굵게 운필한 것 등이 매우 닮아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2-3] 현종 어필편지와 오준의 글씨 비교

한글	하	늑	학	늑	발
한문	吟	池	可	不	無

#### 4. 후3기

##### 4-1. 개요

후3기는 영조 원년(1725년)에서 정조 말년(1800년)까지의 76년간으로서 이 시기는 문예부흥 정책에 따라 역대의 인쇄정책이 계승 발전되어 활자 인쇄문화가 크게 발달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말엽에는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한글 활자체의 정형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시기를 정형기로 명칭하였다.

##### 4-2. 한글과 한자와의 관계

교서관체의 병용 한자활자는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성격의 인쇄용체인 교서관 인쇄자체로서 이러한 성격에 한글을 동화시키고 있다. 줄기에 있어 붓글씨적 성격이 생략되어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성격이 강조되었고, 닿자의 모양은 붓의 흔적이 제거되면서도 그 구조는 붓글씨체 모양 그대로를 반영하였다.

[표 3-1] 교서관체의 병용한자와 한글의 서선 비교

한글	잇	조	교	업	물
한문	寂	人	上	日	出

오문체의 병용 활자인 정리자는 명조체 계열로서, 그 성격은 가로 세로의 줄기 굵기가 크게 다르고 단순하고 기하학적이지만 교서관체와는 달리 명조체 계열의 성격을 한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붓글씨적 성격과 적절히 조화시켰다. 전반적으로 붓글씨적 성격이 두드러지면서도 줄기의 굵기와 들기, 맺음 등의 모든 줄기 성격이 통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간자와 작은자의 한글의 글자 구성이, 작고 밀도 있는 짜임새의 병용 한자 활자 정리자와 어울리도록 작은 크기의 붓글씨체적 응축된 짜임새의 구성으로 이제까지의 활자체와 구별된다.

[표 3-2] 오문체의 병용한자와 한글의 서선 비교

한글	씩	하	소	교	조
한문	欽	生	名	母	柰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꼴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크게 시대별로 구별해보고, 그 중에서 조선시대의 문화 전성기였던 경종에서 정조까지에 해당하는 진경시대의 한글꼴들을 한문 글자꼴과 어떻게 상호 관계하며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았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한글꼴이 한문 글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진평, 한글조형연구, 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발간위원회, 1999
- 최완수 외, 진경시대 1,2, 돌베개, 1998
-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한글의 새로운 시도, 안그래픽스, 1999
- 안상수, 한재준, 한글 디자인, 안그래픽스, 1999